

청주출토 김원택(金元澤, 1683-1766)묘 유물의 복식사적 특징

장 인 우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

Historical Features of the Costumes Excavated from the Tomb of *Won-taek Kim in Cheongju*

In-Woo Chang

Professor, Dept. of Fashion Industry, University of Incheon

(투고일: 2010. 2. 23, 심사(수정)일: 2010. 3. 15, 게재 확정일: 2010. 3. 25)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18th-century man's clothing excavated from Mr. Kim(1683-1766)'s tomb in *Cheongju, Chungbuk* in 2003. There are more than 100 pieces of excavated costumes from the tomb of *Won-taek Kim*. The excavated costumes have the value of genuine materials. Among them, 36 garments in good condition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there are several kinds of the excavated coats with different sizes, depending on the type of coats--*Simui*(深衣), *Danryeong*(團領), *Sagyusam*(四揆衫), *Daechang*(大氅衣), *Jungchimak*(中赤莫), and *Sochangui*(小氅衣). These different-size coats reveal the degree of ritual; the length of the ritual costume is longer than that of the daily one. We can see two kinds (large and small) of coats, jackets, and pants. The large-size clothing is for the dead, the small size one as daily clothing was used for filling the empty space of the coffin. Among the excavated clothing from Mr. Kim's tomb, clothing for the dead(shroud) is bigger than man's daily costume. Concerning the form, color, and materials of the costumes, clothing for the dead is similar to daily clothing, while there is the difference in their size. The oversized costumes of coats, jackets, and pants are also different in size, matching the structure of clothing.

Key words: the 18th-century excavated costume(18세기 출토복식), *Simui*(심의),
Sagyusam(사규삼), *Daechang*(대창의), *Jungchimak*(중치막), *Sochangui*(소창의)

I. 서언

2003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광산김문의 김원택(金元澤, 1683-1766)묘에서 100여점의 복식과 염구(殮具)가 출토되었다. 출토의복은 대부분 포류이며, 이러한 포류는 심의(深衣), 사규삼(四揆衫), 단령(團領), 도포(道袍) 대창의(大鑿衣), 중치막(中赤莫), 소창의(小鑿衣) 등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졌으며, 그간 출토의복에서 볼 수 없었던 사규삼과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심의(深衣)와 복건(幅巾) 그리고 대(帶)가 함께 출토되어 심의일습(一襲)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출토유물들은 18세기에 시행된 남자염습의(殮襲衣)와 남자복식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18세기 출토복식의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서인 이재(李綽)의 『사례편람(四禮便覽)』과의 비교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조선후기 의례와 그 실행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나타난 〈상례(喪禮)〉의 염습의와 의복가운데 구성방법이 언급된 심의와 복건의 구성을 살피고, 김원택묘 출토의복의 종류와 그 성격을 통하여 김원택묘 유물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를 『사례편람(四禮便覽)』과 비교함으로써 그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본 김원택묘에서는 100여점의 복식과 염구가 출토되었으나 오염상태가 심하거나 파손이 심한 것을 제외하고 보존처리후 조사가능한 의복류 30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각 유물의 명칭은 발굴당시 유물번호를 사용하였다.)

II.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나타난 염습의와 의복구성

『사례편람(四禮便覽)』¹⁾은 서명(書名)에서와 같이 『가례(家禮)』를 주축으로 하고 경서(經書) 『기원(記原)』, 『운서(韻書)』, 『신보(新譜)』, 『비요(備要)』, 「여속(如俗)」 혹은 「속칭(俗稱)」 등으로 여러 예서에서 의례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따라서 출전을 통하여 볼 때 『가례』와 『기원』, 『운서』 그리고 『신보』 등은 중국의례임을, 『비요』는 조선중기의 의례임을 그리고 「여속(如俗)」 혹은 「속칭(俗稱)」의 내용은 『사례편람

(四禮便覽)』의 저자 <이재>가 추가한 조선후기의 예임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염습의(殮襲衣)는 『가례』를 통하여 중국의 의례에서 비롯되었으나 『비요』에서 ...或團領(備要)○卽公服, 或直領(備要)○卽俗制常服上衣 不能具深衣者用之, -帶條具 ○(備要)無則用平日所帶, 單袴(備要)○在袴內襯身者....의 내용은 조선사회에서는 심의가 없는 자의 경우는 조선의 일상복가운데 단령이나 직령이 대신하며, 심의의 대(帶)가 없는 경우는 일상복의 띠(帶)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단고(單袴)란 속바지를 뜻하는 것으로 염습의가 조선의 옷으로 절충되는 과정을 보이며, 또한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如俗(中赤莫)(冬衣)之類 ... 혹은 俗稱(的衫) 用紬或綿布爲之... 혹은 小帶... 俗稱腰帶.. 등은 중치막과 적삼(的衫) 그리고 요대 등 의복의 명칭이 우리나라의 것으로 표기되는 변화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의복들 가운데 복건과 심의 그리고 늑백과 급 등은...見上冠禮 陳冠服條....와 같이 관례의 의복과 동일한 것임을 암시하며 이는 염습의에 관례시 착용하는 길복(吉服)이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이처럼 죽은이의 염습의에 길복(吉服)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퇴계(退溪)는 “상중에 죽은이에게 상복(孝服)을 사용하지 않고 길복을 섞음으로써 죽은이가 저승에서 영원히 흥복을 입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²⁾라 하였다.

이러한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진습의조에 나타난 염습의는 ...幅巾·網巾·深衣·袍襖·帶·裹肚·汗衫·袴·單袴·小帶·勒帛·履·充耳·握手·吐手·襪·五囊·衾·片衣·柩衣... 등이며, 이 가운데 과두와 소대 층이와 구의를 제외한 염습의와 염구를 김원택묘 유물에서 <표 1>과 같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사규삼이나 대창의 등 여러 종류의 옷이 다양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염습의를 통해 볼 때 김원택묘 출토복식은 당시 상례의 염격히 시행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나타난 심의와 복건의 구성

심의는 상의하裳(上衣下裳)의 구성과 치마가 12폭으로 이루어지며, 소매는 곡선형을 이루며, 흑연(黑緣)장식과 교임으로 이루어진 특징을 들 수 있다. 이

<표 1> 18세기 남자의 혔습의와 혔구

(단위: 별)

의복명 출처	복 건	망 건	심 의	사 규 삼	단 령	답 호	직 령	도 포	대 창 의	포 오. 중 치 막	소 창 의	대	과 두	한 삼	고	단 고	소 대	늑 백	리	충 이	명 목	악 수	토 수	말	오 낭	이 불	편 의	구 의
사례편람	○	○	○		○	○	○			○	○	○	○	○	○	○	○	○	○	○	○	○	○	○	○	○	○	
김원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	1	2	1	2	1	4	3	8		5	3			1	1	1	1	1	1	1	1	2	31		

러한 심의구성에 대해서 순남숙³⁾은 심의는 조선에 도입된 이후 깃의 형태와 구성에 있어서 한백겸과 박규수 그리고 김장생이 의견을 달리하였으며, 한백겸(1552-1612)과 박규수는 방령의 심의로 앞깃이 방령형태의 구성임에 의견을 같이하나 그 세부구성에서 한백겸은 앞중심에 셀을 추가하여 깃이 방령이 되는 심의로, 이때 치마는 12폭에서 15폭으로 증가되거나 혹은 치마의 위아래가 1:2 비율인 심의구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성의 변화를 보이며, 박규수(1807-1976)의 방령심의는 깃이 참취의 활중과 같이 사각의 방령을 이루어 앞중심에서 교임이 되는 구성으로 치마는 12폭으로 기존의 심의구성과 동일하나 앞중심이 벌어지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깊게 겹쳐 진다는 심의의 명칭이 내포된 형태적 의미와는 차이를 보임을 지적하였다. 이민주 역시 심의의 방령을 한백겸의 의견과 같이 깃머리의 형태가 직각으로 된 것이라 정의하였다⁴⁾. 반면 김장생은 『가례』의 의견과 같이 하여 앞중심의 선장식이 겨드랑이까지 깊게 겹쳐 입는 것이라 하여 의견을 달리하였다. 이재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나타난 복건과 심의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건은 길이 6척4촌(160cm)과 나비1척4촌(35cm)의 긴자락으로 된 검정색의 증(繪)이나 주(紬)를 반으로 접어서 두 자락(兩葉)을 만들고, 곱로 접은 한모서리를 원형(規)으로 하여 밑도련까지 바느질하여 좌우의 두 자락을 연결하며, 이 가운데 연결하지 않은 한 변과 밑도련에 나비2촌(5cm)정도의 안단(緣)을 냈다. 이 안단은 안에서 식서를 감추어 봉제한 제물단으로 완성후 복건의 길이는 3척, 넓이는 1척2촌으로 전체넓

이는 2척4촌이 된다하였다. 중간 접은 곳의 좌우에 주름을 잡아 고정시켜 첨자(輒子)를 만든다. 첨자(輒子)의 양 옆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좌우로 3촌쯤 되는 곳에 각각 작은 끈 연결한다. 이 끈길이(小帶)는 2척(50cm)이며, 나비는 2촌(5cm)이다⁵⁾.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심의의 의(衣)는 정련한 백세포(白細布) 한 폭의 넓이가 지척(指寸)으로 2척 2촌이 되는 폭 2폭을 상의로 하며, 그 길이는 4척 6촌이다. 길이의 중간을 접어 곱로 만든 접어 전후(前後)좌우의 4폭이 되게 하며, 양쪽 어깨 위 곱부분에 각 3촌씩 마름질하여 들이고, 등 뒤는 똑바로 내려오면서 훠매며, 양변에 훠매고 시접 1촌씩을 접어, 양쪽 어깨위로 마름질하여 들인 것과 합하여 모두 4촌이다. 마름질하여 들인 곳에서 앞을 향하여 반대로 접어서 상의(上衣)의 밑까지 이르면 곧 잘라 버려서 옷깃[領]을 훠맬 자리를 준비한다⁶⁾. 이러한 심의의 상의에 대하여 『儀節』에서는 『家禮』衣長二尺二寸이 今裁法前加四寸後加一寸 裁時 其在前兩葉從一邊修起 除去四寸 漸漸斜修 至將近邊處不動 其在後兩葉 亦從一邊修起 除去一寸 漸漸斜修 至將近邊處不動 不如此則兩衾相疊 衣領交而不齊矣.... 『가례』의 심의구성과는 상의의 앞길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상의의 앞길을 4촌만큼 더 깊게 하고, 뒷자락은 1촌을 더 깊게 하여 앞뒷길의 길이에서 차이를 두었으며, 뒷중심의 연결에 있어서도 앞길에서와 같이 뒤에 있는 두 자락도 한쪽 가장자리로부터 마름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1촌을 시접으로 접고 점차 비스듬하게 마름질을 하여 가장자리쪽에 가까워지면 길이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쪽 옷깃[襟]을

서로 겹쳐서 상의의 깃[領]을 교차시킬 때에 가지런하지 않게 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재는 『의절』의 구성에서 앞길의 차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여 상의의 길이를 5척1촌 즉 앞길은 2척7촌으로 뒷길은 2척4촌으로 한다⁷⁾ 하였다.

깃은 길이가 5척 8촌의 옷감을 사용하며 목 뒤 즉 고대에서 접어서 앞으로 향하고 뒷중심에서 고대에 까지 각 2촌씩 한다. 처음 옷을 마름질할 때 전후로 모두가 합하여 4폭이니, 넓이가 8척 8촌이다. 또 양쪽 겨드랑이에 전후로 3촌씩 남는 것을 제거하면 7척 2촌이니, 아래의 치마와 연결할 대비를 한다. 상(裳)과 연결할 때 꿰매고 남은 1촌을 제거하면 상의(上衣)의 길이는 2척 2촌이 되고 상의의 매 폭마다 상(裳)의 3폭을 붙인다⁸⁾.

치마는 포(布) 6척으로 만들며, 상의(上衣)의 길이는 신체의 크고 작음에 따라 하며, 치마의 길이(衣身)는 즉 상의와 연결하여 복사뼈에 당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이때 한폭을 사선으로 재단하여 교해(交解: 비스듬히 나누면)하면 12폭이 되는데 넓은 쪽은 1척 4촌이 되고, 좁은 쪽은 8촌이 된다. 좁은 쪽을 위로 향하게 하여 잇대어 꿰매고, 매 폭마다 양쪽 옆 꿰매는 부분 1촌씩을 솔기로 접는다. 위쪽은 매 폭이 6촌이 되고, 전체 넓이는 7척 2촌이 된다. 치마(裳)의 밑단은 매폭 1척 2촌이 되고, 전체 넓이는 14척 4촌이 된다. 치마를 상의(上衣)와 연결할 때는 등 뒤에서 상의(上衣)와 치마[裳]를 꿰매어 서로 맞추면서 내래오며 여기에서 양 폭을 꿰매는데 마름질하지 않은 식서[直緒]를 합하여 꿰매고, 양쪽 겨드랑이 꿰맨 곳을 전후로 모두 마름질하여 열린 곳 푸서[解緒]를 꿰맨다⁹⁾.

등근 소매는 포 2폭을 사용하며 그 길이는 4척6촌이다. 가운데를 접어서 상의의 좌우에 연결하면 소매[袂]가 된다. 여기에 시접 1촌씩을 접으면 소매의 길이가 2척 2촌이 되어 상의(上衣)의 길이와 같게 된다. 소매 끝은 등글게 규(規)처럼 줄여 나가며 꿰매고 소맷부리에 이르면 1척 2촌이 된다. 상의에 붙이는 곳은 각각 꿰매고 시접 1촌을 접고, 가선을 꿰맨 소맷부리는 또 각각 1촌씩 솔기로 사용한다. 상의의 양쪽 겨드랑이에 2촌을 남기면 2척 2촌이 된다. 소매

가 길고 짧은 것은 반대로 접어서 팔꿈치에 이르게 하되 꼭 1폭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¹⁰⁾.

검은 가선(黑緣)은 검은 비단을 사용한다. 옷깃, 소매부리 및 치마의 하단을 꾸미며, 안과 밖에 각각 1촌 반씩 사용한다. 옷깃과 치마의 하단은 포(布)의 위에 겹쳐서 매며, 소맷부리는 포 밖에 별도로 꿰매는데 이 가선은 넓게 한다¹¹⁾.

심의의 착용에 대해서 염습할 때 敗衣右衽 結小帶 상의는 우임을 하며, 작은 띠로 묶는다. 다시 큰 띠로 묶는다. 『본주(本註)』에 의하면 허리를 둘러서 앞에서 묶고, 다시 한 번 둘러서 두 고리를 만든다. 남은 끈을 늘어뜨려서 신(紳)을 만들고, 끝은 치마와 길이가 같게 한다. 다시 작은 끈으로 매듭지은 곳을 매듭을 짓고 길이는 신(紳)과 같게 한다¹²⁾.

이상과 같이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나타난 복건 구성은 兩葉, 小帶, 幌子, 緣으로, 심의구성은 衣, 領, 裳, 圓袂, 緣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건과 심의구성에서 공통된 구성요소 연(緣)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복건에서는...爲緣而翻轉之 使縫餘及緣... 으로 안감쪽에 1겹의 안단인 재물단을 연(緣)이라 한 반면 심의에서는 ... (黑緣)用黑繪 飾領及袂口 裳旁下際 表裏各一寸半.... 안팎 모두에서 2겹의 선장식을 연(緣)이라 하는 구성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연(緣)이 장식선외에 의복의 안단까지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외 복건은 정수리의 뒷부분을 등글게 하며 ...圓殺一角如規와 심의는 소매를 ..袖端下旁 圓殺如規..와 같이 하는 것으로 그 형태가 모두 규와 같게 하는 공통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의 형태는 ..規所以爲員之器也.. 혹은 規所以正圓...¹³⁾으로 원과 같은 곡선 즉 원의 호와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방씨(方氏)는 소매의 형태가 등근 것은 등근 원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이 팔이 움직이기 때문이라 하였으며¹⁴⁾ 여기서 복건의 형태가 규와 같이 등근 것 역시 같은 의미라 해석된다.

특히 심의구성에서는 목을 감싸는 구성부위를 지칭하는 어휘로 깃(領)과 연(緣)을 따로 언급할 뿐 아니라 깃(領)은 2치인 반면 연(緣)은 1촌 반으로 두 구성요소가 동일하지 않은 것임을 반영하고 있다.

III. 실물조사를 통해 본 의복의 성격

김원택묘 출토의복은 포가 8종 20벌로 가장 많으며, 저고리는 3벌 그리고 바지는 4벌이며, 이러한 의복가운데 실측가능한 의복의 구성요소별 크기는 <표 2>와 같다. 김원택묘 출토포는 심의(1), 단령(2), 사규삼(1), 담호(1), 도포(1), 대창의(7), 소창의(6), 중치막(1)점 등으로 다양한 종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심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포는 트임이 있으며, 대창의와 소창의 그리고 중치막과 같은 창의류 중심이었다. <표 2>에 의하면 의복의 총길이는 심의(144cm), 단령(134cm), 도포(126.5cm), 대창의(128cm), 중치막(124cm), 소창의(119cm)의 순으로 포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는 김원택묘 출토복식이 한 개인의 의복임을 감안할 때 의복의 종류에 따라 크기를 달리 하였음을 뜻한다고 본다. 또한 2벌이상 출토된 단령과 대창의 그리고 중치막과 소창의 및 저고리와 바지에서 동일 의복임에도 불구하고 두 크기가 나타난다. 이는 염습의의 대형화에 의한 결과로 해석되며, 이러한 동일의복의 두 크기는 동시기의 의원군¹⁵⁾과 청주출토 전주이씨 출토의복¹⁶⁾에서 볼 수 있다.

1. 포류

심의(No.63)와 심의끈(No.83,84)

출토심의는 의원군(1661-1772)¹⁷⁾묘와 이연응(1818-1879)¹⁸⁾묘 그리고 김학(1572-1633)묘¹⁹⁾와 홍의준(1761-1841)²⁰⁾묘에서 각 1점씩 출토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군묘 출토심의는 김원택묘 출토심의와 그 연대가 가장 유사하지만 이연응묘 출토심의와 함께 파손이 심한 상태이며, 김원택묘보다 앞시기의 김학묘와 뒷시기의 홍의준묘 출토심의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김원택묘 출토심의는 훌겁구성이며, 한폭의 길과 1폭반으로 이루어진 소매 그리고 6폭으로 이루어진 치마와 앞중심과 소매 그리고 밀도련은 겹푸른색의 공단으로 선(緣)이 장식되어 있다. 이 검은 선(黑緣)은 3cm나비이며 2겹이나 1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중심과 밀도련 그리고 수구에 장식되었으며 솔기는 1cm이며,

앞중심과 밀단이 교차되는 곳은 선단처리후 밀단이 처리되었다. 김원택묘 출토 심의에서는 상의의 앞중심에 검은 선단 아래에 길과 동일한 흰색의 옷감으로 검정선(緣)보다 넓은 4.5cm나비로 길이 감싸여 덧대어진 구성부위를 볼 수 있다. 이 부위가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심의구성가운데 것 즉 방령(方領)에 해당되는 곳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령은 <그림 1>과 같이 고대에서 허리연결선에 이르는 좌우앞중심에 4.5cm나비의 것의 형태로 2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방령에 대해서 윤휴는 방령의 형태가 네모난 것은 학자는 생활을 방정하게 하라는 의미라 하였으며, 본 김원택 출토심의를 통하여 볼 때 방령의 형태란 사각형 형태의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²¹⁾.

김원택묘 출토심의는 오른쪽길(RH)에만 <그림 2>와 같이 2개의 고름이 있다. 왼쪽길(LH)의 고름은 소실된 상태이다. 이 두 고름은 나비가 6cm나비로 유사하나 고름길이는 하나는 65cm이며, 다른 하나는 56cm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고름이 달린 위치는 허리선을 중심으로 3cm는 상의에 3cm는 치마에 놓이나, 고름하나는 앞중심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겨드랑이3로 서로 위치를 달리하고 있다. 여기서 위치가 다른 두 고름가운데 겨드랑이부위의 고름은 걸고름이며, 앞중심의 고름은 속고름으로 유추되며 겨드랑이에 위치한 고름이 65cm로 다른 고름56cm보다 다소 긴 것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걸고름과 속고름이 모두 양쪽 겨드랑이에서 끈임에 따라 흑연이 자연이 깊게 이루게 되는 구성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구제도에서 양깃이 교차하여 곱자모양(矩)을 이루어 각이 지게된 것으로 본다²²⁾. 심의(深衣) 제도에 있어서 고름은 가슴을 여미는 것으로 이 같은 고름을 매지 않고 가슴을 그대로 드러낸 모습을 창피(昌披)라 하였으며,²³⁾ 오늘날 어휘 ‘창피’의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출토심의의 띠는 2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하나(No.83)는 <그림 3>과 같이 그 길이가 약222cm이며 나비는 3.8cm전후이며, 끈의 끝부분에서 90cm까지 1.1cm나비의 검은색 선이 감싸져 있으며, 이 때 4겹이 하나의 공구르기로 바느질되어 있다. 다른 하나(No.84)는 길이는 143cm이며, 유물(No.83)과 같

〈표 2〉 출토의 복의 구상부우별 성격과 크기

— 파손 소실되어 실측이 어려운 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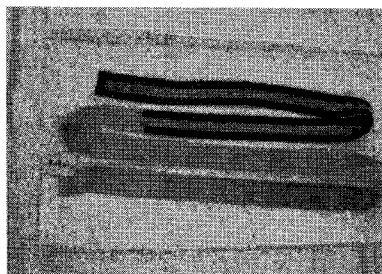
〈그림 1-14〉는 본인 촬영 2005-2010, 충북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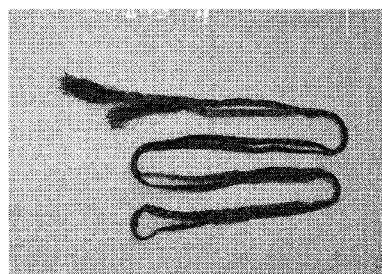
〈그림 1〉 심의(No.63)의 방령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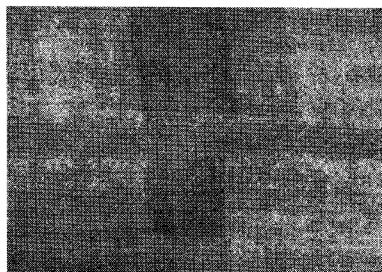
〈그림 2〉 심의(No.63)의 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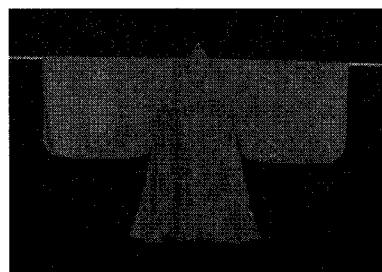
〈그림 3〉 심의(No.83.85) 띠(帶)



〈그림 4〉 세조대(No.56)



〈그림 5〉 심의(No.63) 뒷중심선



〈그림 6〉 단령(No.18)

이 90cm까지 겹은 선이 장식되어 있다. 따라서 심의의 띠는 총 365cm이며, 나비는 약4cm정도이다. 띠의 양쪽 끝에 장식된 겹은 선장식부분을 제외한 길이는 약185cm이다. 이는 띠의 양끝 선이 장식된 부분이 앞으로 드리우는 부분이라면 허리를 감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부위가 185cm에 이르는 것은 허리를 두 번 감을 수 있는 길이라 유추된다. 이는 ...土之帶以練單用之。廣二寸。再繞腰一帯。²⁴⁾와 같이 선비(士)의

띠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 〈그림 4〉와 같은 세조대가 있다.

이외 김원택묘 출토심의는 상의(上衣)와 하裳(下裳)의 뒷중심이 〈그림 5〉와 같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등에 진 줄이란 의미의 부승(負繩)이라 하며, 김장생은 이러한 직선(直線)의 형태는 정치를 곧고 바르게 하라는 심의를 입는 학자들의 자세를 상징하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²⁵⁾고 하였다.

이외 전동 그리고 허리연결선과 치마의 각 폭의 연결솔기는 2cm나비이며 가름솔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치마는 좁은 윗부분은 13cm이며, 아랫부분은 25cm이며, 소매는 1폭반으로 재단되었으며, 수구의 형태는 원형으로 곡선으로 처리되었으며, 고름은 홀겹구성이며 고름의 양쪽 솔기는 1번 감아 공구르기이며 모두 푸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봉제는 동시에 다른 옷들의 바느질방법과 유사하나 솔기의 크기가 약2cm정도로 다른 옷들의 솔기보다 넓은 차이를 나타낸다.

단령(No.81,18)

18세기 출토단령은 의원군묘와 이연옹묘 그리고 김학묘에서 볼 수 있으며, 김원택묘 출토단령(No.18, 81)은 2벌이며 모두 오염이 심한상태이었으나 대부분 제거되고 그 흔적만 남아있으며, 이외 형태와 봉제는 <그림 6>과 같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이 두 옷 가운데 단령(No.81)은 단령(No.18)보다 총길이에 있어서 약 6cm정도 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두 단령 모두 2겹이나 결감은 홀겹의 단령이며 안감은 홀겹의 직령으로 안팎의 짓이 다르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두겹구성의 단령은 이연옹묘와 의원군묘 그리고 김학묘의 출토단령에서도 볼 수 있으나, 김원택묘 출토단령은 안깃이 칼깃인 반면 의원군과 김학묘 출토단령은 안깃이 당코깃으로 차이를 나타낸다. 김원택묘 출토 두 단령은 셋의 선단과 무의 선단 그리고 밑도련은 결감이 안감보다 0.2cm(No.81)에서 0.5cm(No.18)정도 크게 구성되었으며, 셋과 무의 선단 1cm길쪽 위치에서 안팎을 1.2cm에서 1.5cm나비의 땀이 0.5cm간격으로, 뒷길은 길과 무의 연결선상에 밑도련의 안단위치에서 수직으로 약2cm크기의 땀 3개가 안팎으로 정거져 있으며, 이는 안팎을 고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원택묘에서 출토된 두벌의 단령은 동정이 안깃나비와 유사한 12cm(No.18)와 13cm(No.81)나비로 넓게 구성되었다.

이외 단령(No.18)은 겨드랑이에 대(帶)의 걸이가 달려있다. 김원택묘 출토단령(No.81)의 고름은 결고름과 속고름 모두 두겹고름이다. 단령의 긴고름은 결단령과 안감의 직령의 동일한 위치에 결단령은 7.5cm나비 63.5cm길이의 2겹고름이, 안감의 직령은 6cm나

비 64cm길이의 2겹고름이 안팎에 달리 구성되었으며, 짧은 고름은 7.5cm나비의 2겹고름이 하나이다. 속고름은 안깃에 달린 속고름은 동일한 위치에서 결감의 단령에 7cm나비 64cm의 2겹고름과 안감의 칼깃에 5cm나비 64cm의 2겹고름이 동일한 위치에 달려있다. 겨드랑이에 6cm나비 63cm길이의 2겹고름이 분리된 채 있다.

김원택묘 출토단령(No.18)의 결섶에 연결된 고름은 홀겹이며, 고름나비는 길에 연결되는 부분은 2cm정도 접어 6cm나비이며, 아랫부분은 8.5cm이며, 고름의 위(上)가 식서이며 아래는 푸서로 옮겨 풀려 있다. 고름의 길이는 65cm이다. 칼깃에 달린 결고름은 홀겹이며, 고름의 윗나비는 6cm이며, 2.5cm는 것에 3.2cm는 셋에 연결되었으며 고름의 길이는 65cm이며, 고름의 아랫나비는 8.5cm이다. 길에 달린 결고름의 윗나비는 6cm이며, 아래나비는 9cm이고, 고름길이는 66.5cm이다. 고름의 위(上)는 식서이며, 아래는 푸서로 좌우 결고름의 길이는 동일하다. 단령의 속고름은 안깃에 연결되었으며, 고름의 윗나비는 4.7cm이며, 길이는 39.5cm이다. 칼깃의 속고름은 윗나비는 5cm이며, 아랫나비는 7.2cm이다. 두 개의 결깃과 안깃에 각 고름이 1개씩 달려 깃에 연결된 결고름과 속고름은 2개씩으로 결고름3과 속고름3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구성된 3개의 고름은 이연옹묘 출토단령에서도 볼 수 있으나, 김학묘 출토단령은 고름이 소실된 상태이다. 이는 한 옷에 독립된 2개의 깃을 구성한 것은 결깃과 안깃 모두를 각기 고정하기 위한 2개의 고름이 필요로 하였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이후 3개로 이루어진 단령의 고름구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사규삼(四揆衫, No.62, 그림7)

김원택묘 출토 사규삼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맞깃구성의 사규삼은 셋과 무가 없으며 옆이 트여진 남자의 포이며, <그림 7>과 같이 깃과 앞중심의 선단과 밑도련 그리고 옆트임의 선단 그리고 소매의 끝에 6-6.5cm나비의 검정색 선이 장식되어 있으며, 깃은 여자의 원삼과 유사한 등근 깃이다. 사규삼은 홀겹이며 선도 홀구성으로 시접은 1cm이다. 앞중심과

양옆의 선단과 밑도련이 겹쳐지는 모서리는 대각선으로 장식하였다. 김원택묘 출토 사규삼은 출토복식에서는 처음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

도포(道袍, No.6, 그림8)

출토도포는 의원군묘에서 1점, 이연응묘에서 홀겹 도포 2점이, 김학묘에서는 홀겹도포2점과 2겹도포3점이, 흥의준묘에서 홀겹도포3점이 출토되었다²⁶⁾.

김원택묘 출토 홀도포(No.6)는 <그림 8>과 같이 형태와 색상 그리고 재질의 보존상태는 양호하나, 겨드랑이와 깃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본 도포는 앞여밈의 걸섶과 안섶의 선단 그리고 밑도련과 뒷트임 그리고 뒷자락에 안단이 구성되었다. 걸섶의 선단은 8cm나비의 덧단인 반면, 안섶의 선단은 나비1.8cm의 제물단이고, 밑도련은 8cm나비의 제물단이다. 밑도련의 덧단은 이새처리를 하여 봉제되었다. 뒷중심 트임의 선단은 1.8cm나비의 제물단이며, 뒷자락의 양옆 선단은 8.5cm나비의 덧단이며, 밑도련은 8.3cm의 제물단으로 구성되었다.

깃은 걸깃은 칼깃이며, 안깃은 목판깃형태이다. 소매는 두리소매이며, 수구에는 8.2cm나비의 덧단이 대어져 있다. 고름은 걸고름의 왼쪽고름은 홀겹이며, 고름의 위부분은 접혀져 7.8cm의 고름이 접혀져 5.3cm나비로 만들었으며, 고름의 끝부분은 옻이 풀려있다. 고름의 윗부분은 식서를 사용하였으며, 아래는 0.4cm나비이다. 긴고름은 7.6cm나비를 5.5cm로 접어 길에 달았으며, 이때 3cm는 깃에, 그리고 2.5cm는 셋에 연결되었다. 윗부분은 식서이며, 아래부위는 0.4cm나비로 1번감아 공구르기로 처리되었다. 속고름은 홀겹이며, 나비는 6.3cm이며, 깃에 달린 부분은 4cm나비로 접힌 상태로 바느질되었으며, 끝은 옻이 풀렸다.

답호(No.10)

본 김원택묘 출토답호(No.10)는 솜구성이며 진동에서 소매가 분리된 상태이다. 이러한 소매는 원래부터 없었는지 중간에 소실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 양소매의 진동과 배래 그리고 겨드랑이 아래 옆선과 양쪽 트임 및 밑도련에 2-3cm크기의 땀이 0.5cm간격으로 상침되어 있어 답호로 추정된다. 본 유물

(No.10)은 앞길과 뒷길의 도련모서리에 실고리가 모두 남아있으며, 또 길과 소매에 누비기 위하여 2.9cm간격으로 옻을 링긴 자리가 누비지 않은 상태로 선명하게 남아 있다.

대창의(大鑿衣, No.7,8,9,11,6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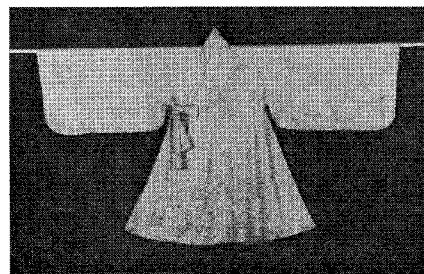
출토대창의는 의원군(1661-1722)묘에서 2점이, 남오성묘(1643-1712)²⁷⁾에서 4점이, 그리고 이연응(1818-1879)묘와 흥의준묘에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출토 대창의는 모두 뒷트임과 두리소매로 구성되었다. 김원택묘 출토대창의(No.7,8,9,11,64,66) 등 6점이 있으며, <표 2>에 의한 김원택묘 출토대창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김원택묘 출토대창의의 구성유형은 6벌 가운데 4벌(No.7,8,11,64)이 <그림 9>와 같이 2겹구성이며 이외 솜구성(No.9)1벌과 누비구성(No.66)으로 다양한 구성유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대창의(No.11)는 총길이가 107cm이고 이외 5점의 대창의(No.7,8,64,65,66)는 122cm에서 128.5cm 크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두 크기의 대창의는 총길이뿐 아니라 화장과 수구 그리고 깃나비와 뒷트임에 이르기까지 구성요소의 크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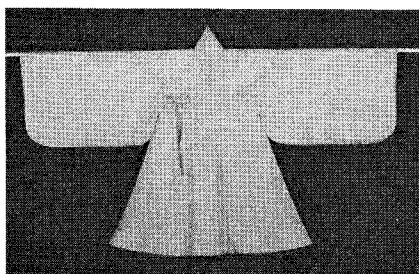
김원택묘 출토대창의의 깃은 칼깃이며, 안깃은 목판깃형태이다. 소매는 모두 두리소매이며, 솜대창의(No.9)의 경우 수구둘레에 고은 흠질로 상침이 처리되어 있으며, 이외 대창의(No.66)는 수구에 5cm나비의 덧단이 대어져 있고, 고름은 걸고름은 좌우고름의 크기가 유사하다. 즉 대창의 대부분의 고름나비는 5cm내외이며 고름길이는 58cm에서 68cm로 유사하며, 속고름 역시 두 고름 모두 나비는 4cm에서 5cm이며, 길이는 40cm에서 50cm이다. 속고름은 걸고름보다 나비와 길이에서 다소 작은 경향은 있으나 좌우고름은 유사하다. 봉제에 있어서 대창의(No.9,11)의 고름은 윗부분(上)은 좁게 길에 달리고 나머지 고름의 끝부분(下)은 넓게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외 대창의(No.8)에서 고름을 3땀상침으로 길에 연결한 예도 보인다. 솜대창의(No.9)의 경우는 걸섶의 선단과 뒷트임은 선단외각에서 약5cm안쪽부위에 2땀상침이 7.5cm간격으로 상침되었으며, 밑도련은 6cm내외 안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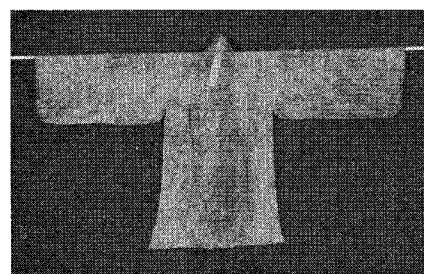
〈그림 7〉 사규삼(No.62)



〈그림 8〉 도포(No.6)



〈그림 9〉 대창의(No.8)



〈그림 10〉 중치막 (No.65)

위에 2땀상침이 처리되었다. 출토대창의는 모두 뒷중심에 트임이 있으며, 트임의 크기는 54cm(No.11)에서 83cm(No.61)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대부분은 70cm에서 8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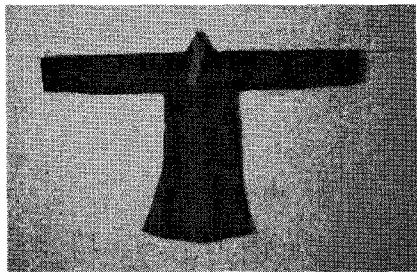
중치막(中赤莫, No.61,65)

출토중치막은 홍의준묘에서 3점, 의원군묘에서 5점, 동래정씨묘에서 7점, 남오성묘에서 8점과 김학묘에서 16점이 있으며, 이 가운데 김학묘의 중치막은 소매가 모두 곡선소매이며, 의원군묘 출토중치막(No.54)은 것이 당코깃으로 김원택묘 출토중치막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김원택묘 출토중치막은 〈표 2〉에 의하면 모두 두리소매이며, 옆트임이 있는 옷으로 분류된다. 중치막은 솜구성(No.65)과 겹구성(No.61)의 2별이 있으며, 크기는 매우 유사하다. 즉 총길이는 124cm이며 화장은 115cm이내이며, 수구는 26cm이며 고대23cm이며 트임은 81cm내외이다. 두 중치막(No.61,65) 모두 〈그림 10〉과 같이 봉제가 거칠며 오염이 심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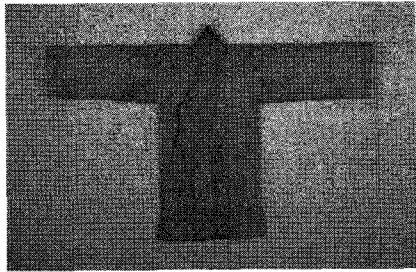
소창의(小簷衣, No.1,2,12,14,16,67)

출토소창의는 홍의준묘에서 10여점, 의원군묘에서 5점, 이연응묘에서 1점, 그리고 동래정씨(1624-1695)묘²⁸⁾에서 1점, 남오성묘에서 15점 그리고 김여온(1596-1665)묘²⁹⁾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김원택묘 출토 소창의는 〈표 2〉에 의하면 사선소매이며, 옆트임이 있는 포(袍)의 구성이다. 이러한 소창의의 구성유형은 누비구성(No.1,2)과 솜구성(No.12,16,67)이었다. 크기에 있어서 〈그림11〉과 같이 총길이가 100cm내외의 작은 소창의(No.1,2)와 〈그림12〉와 같이 119cm내외의 큰 소창의(No.12,16,67)로 분류되며, 이러한 크기의 차이는 화장과 수구 그리고 깃나비 및 고대에서도 볼 수 있다. 소창의의 겉것은 칼깃이며 안것은 목판깃형태이다. 크기가 작은 소창의(No.1,2)는 19cm내외의 수구인 반면 큰 소창의(No.12,16,67)의 수구는 30cm내외로 차이를 보이며. 2별의 누비소창의(No.1,2)는 색상의 차이를 제외한 크기와 구성이 매우 유사하며, 봉제에 있어서 소창의(No.1,2)는 누비간격이 0.8cm이며, 누비는 끼워넣기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소창의(No.1,2)는 모두 걸섶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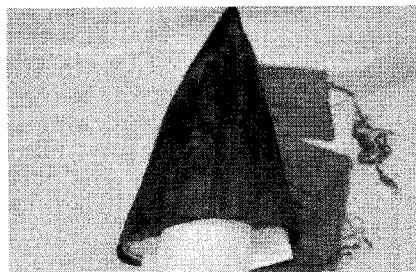
〈그림 11〉 소창의(No.1)



〈그림 12〉 소창의



〈그림 13〉 누비바지(No.)



〈그림 14〉 복건(No.104) 중심과 첨자

선단과 밑도련 그리고 양옆트임의 안에는 1cm나비의 안단이 대어져 있는 반면 안섶의 선단에는 안단이 대어져 있지 않았다. 소매는 직선의 사선소매이며, 수구는 안에 0.8cm나비의 제물단이 처리되었다. 긴고름과 짧은 고름의 나비는 4cm에서 5cm이며, 길이는 59cm에서 62cm내외로 유사하다.

2. 저고리류(赤古里, No.13,15,73)와 바지류(袴, No.3,4,5,17,19)

김원택묘 출토저고리는 〈표 2〉와 같으며, 구성유형은 솜구성(No.13)과 누비구성(No.15)이며, 크기는 총길이는 70cm내외이며 화장은 108cm내외로 유사하다. 저고리(No.15)는 양호한 상태이며 오염물없이 깨끗하며 안깃머리에 실고리가 남아있다. 저고리(No.15)는 매우 고운 흄질로 누벼져 있다. 저고리(No.13)과 저고리(No.15)는 길이는 유사하나 화장과 짓나비 그리고 짓길이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짓은 걸짓은 칠것이며 안깃은 목판깃형태로 동일하나, 화장은 저고리(No.13)은 100cm인 반면 저고리(No.15)는 87cm로

짧으며, 짓나비는 저고리(No.13)은 13cm인 반면 저고리(No.15)의 짓나비는 11.5cm보다 넓으며, 짓길이 역시 저고리(No.13)은 100cm인 반면 저고리(No.15)는 93cm로 짧다.

김원택묘 출토바지는 〈그림 13〉과 같은 누비구성(No.3,4,5)과 솜구성(No.17)이 있으며, 이 가운데 바지(No.18과 No.80)2점은 오염이 심한 상태로 처리가 끝나지 않아 본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표 2〉에 의하면 바지는 크기에서 2유형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차이는 총길이와 허리길이에서 볼 수 있는 반면 나비 즉 마루폭나비와 큰사폭나비에서는 유사하다. 작은 바지(No.3,5)는 총길이가 112cm, 허리길이는 115cm인 반면 큰바지(No.4,17)는 총길이는 124cm, 허리길이는 125cm내외로 차이를 나타낸다. 바지(No.3,4,5,17)은 뒷면에서 마루폭이 2조각으로 연결되어있다. 이는 바지의 통이 넓은 반면 직물의 폭이 좁은 결과로 뒤에서 직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추정한다. 누비바지(No.3,4,5)는 바지의 부리 안에 1cm나비의 덧단이 대어져 있으며, 누비는 모두 끼워넣기 방식으로 누벼져있다.

3. 기타

복건과 망건(幅巾, 紗巾, No.104)

출토복건은 흥의준묘와 의원군묘 그리고 이연응묘에서 각 1점씩 3점이 있으며, 출토망건은 이연응묘와 흥의준묘에서 출토되었다.

김원택묘 출토복건은 부분부분이 파손 분리된 상태이며, 색상은 검푸른색임 일부 탈색되어 갈색이 혼재되어 있다. 건의 총길이는 60cm이며, 나비는 54cm이다. 복건은 <그림 14>와 같이 뒷중심은 꽂으로 구성되고 머리중심은 앞중심에서 모자의 뒷부분까지 34cm가 0.5cm크기의 통솔로 바느질되었다. 모자의 중심 좌우에 2cm나비의 맞주름이 잡혀있으며, 0.5cm 안쪽 지점에서 상침으로 고정되었다. 주름이 잡힌 중심에서 11cm아래지점에 끈이 달린 혼적을 볼 수 있다. 끈의 나비는 5cm이며 길이는 65cm이고, 홀겹이며 0.2cm 나비로 1번감아 공구르기로 처리되었다. 복건의 앞 양선단과 밑도련은 모두 3cm나비의 제물단으로 처리되었으며 선단과 밑도련의 교차부위는 사선으로 접혀서 봉제되었다.

김원택묘 출토망건은 두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망건의 총길이는 12cm이며 나비는 약61.5cm이다. 망건의 아래 망줄이 끊어진 채 2개가 있다. 망줄은 0.4cm나비에 약38cm내외이다. 관자놀이 위치에 있는 망고리는 두 개가 밑도련에서 0.5cm위 위치에 0.4cm 높이에 나비2cm내외로 달려있다.

망건의 안은 위는 0.8cm, 아래는 1.4cm, 양옆선단은 1.5cm의 제물단이 대어져 있다. 망건의 위에서 2cm아래 위치에 0.7cm땀이 0.7cm간격으로 흠질로 처리되어 져 있다.

이상과 같이 김원택묘 출토의복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첫째, 누비구성의 옷이 많이 출토된 점이며, 이러한 누비옷은 포류와 저고리 그리고 바지 등 모든 의복에서 볼 수 있었으며, 누비는 끼워넣기 방식이었으며, 이러한 누비는 누비간격에 따라 올을 뒹겨 누릴 위치를 표시한 후 누빈 것을 담호(No.10)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는 동일한 종류의 의복에서 두 크기의 옷이 출현하는 점이다. 출토의복 중 한 벌 이상 출토된 단령과 대창의 그리고 소창의 및 저고리와 바지에서

두 크기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두 크기 의복 가운데 크기가 큰 의복은 오염이 심한 상태이며, 봉제에 있어서도 굽지 않은 공통점이 보이는 것으로 큰 옷은 염습의인 반면 작은 옷은 일상복으로 추정된다. 특히 포류는 길이와 화장 그리고 깃과 고대의 크기가 모두 크며, 저고리의 경우는 길이는 동일하나 깃의 나비와 길이 그리고 고대가 크며, 바지는 길이와 마루 폭과 허리둘레가 큰 것을 볼 수 있어 의복에 따라 대형화된 부위와 비율을 달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출토의복 가운데 트임이 있는 창의류가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김학묘나 흥의준묘에서도 10여점 내외로 나타나는 것으로 동시에 출토포류에서 일어나는 경향으로 조선후기 남성복이 트임이 있는 포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김원택묘 출토창의류는 트임의 위치와 소매형태에 따라 대창의는 뒷트임과 두리소매로, 중치막은 옆트임과 두리소매로, 소창의는 옆트임과 차수(사선소매)로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동시기의 이연응묘의 창의류에서는 동일한 반면 앞시기의 김학묘 출토창의류에서는 중치막과 창의가 모두 곡선소매로 구분되지 않는 것과는 차이를 볼 수 있어, 본 김원택묘 창의류의 유형들이 18세기 남자창의류의 전형으로 유추된다.

IV. 『사례편람(四禮便覽)』과 실물에 나타난 복건과 심의구성

앞에서 살펴본 『사례편람(四禮便覽)』과 김원택묘 출토복건은 구성방법에 있어서 대부분이 유사하였으나 복건의 재단과 앞중심의 주름 그리고 끈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복건의 모자를 이루는 좌우의 두 자락의 연결에 있어서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中摺其長... 合縫循其邊而下 至于兩末而止...모자의 정수리가 꽂이며 뒤중심선에서 좌우를 잇는 반면 실물에서는 <그림 14>와 같이 뒷중심이 꽂이고 정수리 좌우가 이어진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안단구성에서 안단의 크기가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二寸許爲 緣而翻轉之...皆藏在裏... 2촌(4.5cm)정도라 하였는데, 실물은 약3cm이었다. 여기서 이 2촌에서 1번감아 공구르기를 안으로 약0.5cm정도의 시접이 다

시 접혀 들어간다면 그 크기가 3cm로 유사한 것으로 2촌은 시접을 포함한 나비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수리중앙에 맞주름의 첨자구성은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中屈處 提起左旁小許... 兩相轡著 相轡在內用線綴住而空其中 為(輒子)라 하여, 그 크기는 ..小許..라 하였는데, 이를 실물에서는 2cm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 복건의 끈은 ...從輒子兩旁循邊而下 左右每三寸許 當鬢旁 各綴小帶一 廣二寸長二尺... 첨자로부터 양옆3촌씩 내려와 있으며 나비는 2촌 길이는 2척이며, 김원택묘 출토복건은 정수리에서 약11cm내려와 5cm나비에 65cm길이의 끈으로 나비는 유사하나 위치와 길이에서 차이를 보인다.

심의의 구성에 있어서 상의의 크기는 『가례』에서 ...廣二尺二寸(指尺) ... 衣用布二幅 各長四尺六寸 中屈下垂 지척으로 2척2촌 폭이 2폭이며 길이는 4척6촌을 반으로 접은 상의라 하였으나, 『儀節』에서는 ...今裁法前加四寸後加一寸...으로 앞뒤길이의 차이가 있다하였다. 이재(李緯)는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이러한 『의절』의 구성에 따라 ...用布長五尺一寸 前垂二尺七寸 後垂二尺四寸... 앞길이 뒷길보다 3촌 길게 하는 구성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원택묘 실물심의는 앞길과 뒷길의 길이는 약47cm로 동일하게 구성되었고, 『상례비요』³⁰⁾에서는 ...衣全四幅 其長二尺二寸 過脇 下屬於裳 其制 用布二幅 中屈下垂 前後共爲四幅 如今之直領衫... 어깨를 곱선으로 구성하여 전후의 길이가 조선중기의 직령의 상의와 같다고 하여 앞뒷길의 길이가 같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김원택묘 출토심의의 상의구성은 동시기의 『사례편람(四禮便覽)』과는 달리 『상례비요』에 나타난 심의구성과 일치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김학묘 출토심의에서도 확인된다. 김원택묘 출토심의의 치마(裳)의 길이는 99cm이다. 이러한 치마의 크기에 대해 『사례편람』에서는其長隨體之長短 並衣身以及踝爲準..과 같이 착용자의 키에 따라 복사뼈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착용자의 키에 관계없이 상의의 길이는 일정하게 한 후 치마의 길이는 착용자의 신장에 따라 달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김학묘 출토심의의 上衣는 51cm이며, 下裳은 80cm이며, 홍의준묘 출토심의의 上衣는 57cm이며, 下裳은 73cm인 점으로 보아 김원택묘 출토심의가 『사

례편람』의 구성에 근접한 예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본 심의의 치마가 99cm인 것은 김원택의 신장이 적어도 180cm이상이라고 유추되나, 실제 김원택의 다른 출토복을 통해 볼 때 김원택은 오히려 신장이 작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원택묘 출토심의도 습의로 크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원택묘 출토심의에서는 앞중심 좌우에 검정선장식인 緣의 구성아래에 길과 동일한 웃감으로 덧단구성을 <그림 1>과 같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사례편람』에서는 ..則兩肩上裁入 合爲四寸 自裁入處向前反摺 至衣下 卽翦去之 以備綴領... 양어깨 곱선에서 앞길에서 4촌을 반대로 접어 것(령)을 달자리를 만든다.... 하였는데, 실물 김원택묘 출토심의에서 상의의 앞중심에 약4.5cm나비로 접어 만든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상례비요』에서 ...兩襟相掩 在腋下 兩領之會自方... 말하는 방령이며, 예기에서 말하는 ...禮記所謂 裕二寸 是也... 2촌크기의 겹(裕)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민주는 한백겸은 령연(領緣)을 겹으로 정현과 사마광은 방령과 겹이 동일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³¹⁾. 그러나 김원택묘 출토심의에 의하면 방은 겹이며, 흑연과는 다른 것이나 이 겹 위에 흑연이 놓이는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 혹은 겹의 구성은 김원택묘 출토심의는 약 4.5cm로 문헌에서 언급한 2촌과 크기도 유사한 반면 이 방령은 앞 시기의 김학묘 출토심의에서도 확인되나 그 나비가 11cm로 크기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구성과정에서 소매와 치마를 길게 구성한 것은 ...袂之長短 反詘之及肘 不以一幅爲拘...其長隨體之長短... 이라는 『사례편람』에 나타난 심의의 소매와 치마구성은 신체크기에 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원택묘 출토심의는 각 연결솔기 뒷중심과 진동 그리고 허리 와 각 치마의 폭과 폭의 시접의 크기가 약1.5cm에서 2cm이다. 이는 『사례편람(四禮便覽)』의 것..除縫餘兩邊各一寸.. 길의 진동...除去一寸.....소매의 시접은各除縫餘一寸 袂口綴緣處 又各除一寸 而衣屬袖處 亦除縫餘各一寸..으로 솔기크기가 1촌인 것과 그 크기가 유사하다. 반면 김학묘 출토심의의 시접크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시접의 크기는 『상례비요』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부분으로 『사례편람(四

『禮便覽』의 심의구성에 일치한다.

이상과 같이 김원택묘 출토심의는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심의구성과 크기와 구성법에서 모두 유사하나 앞길과 뒷길의 길이가 동일한 것은 『사례편람』과는 달리 『상례비요』와 일치함을 볼 수 있었으며, 여기서 심의의 고름이 구성된 점은 『사례편람』과 『상례비요』의 구성법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앞중심의 연에 속고름이 달린 것으로 보아 연이 양겨드랑이에 고정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심의의 봄을 깊게 가린다는 원 의미³²⁾도 같은 구성될 수 있다. 이외 김원택묘 출토심의의 솔기가 약 1.5~2cm로 일상복과 달리 큰 것은 일상복과는 달리 『사례편람』의 심의구성에 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V. 결언

청주 출토 김원택(1683-1766)묘 출토유물은 『사례편람(四禮便覽)』의 남자의 염습의 가운데 복건, 망건, 심의, 단령, 반비, 도포, 소창의, 대, 과두, 한삼, 고, 단고, 소대, 늑백, 극, 명목, 악수, 말 가운데 과두와 소대와 총이를 제외한 모든 염습의 출토된 청주 출토 김원택(1683-1766)묘 출토유물이 상례의 엄격한 시행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출토된 다양한 종류의 포를 통하여 조선후기 남자포류를 이해할 수 있었다.

김원택묘 출토의복 가운데 포와 저고리 그리고 바지는 크기에 있어서 대·소의 2종류가 공존한 반면 의복의 형태와 색상 그리고 재질은 유사하였다. 이는 습의와 산의로 넣은 일상복의 차이로서 당시 염습의가 일상복과 형태와 재질 및 색상 등은 유사한 반면 크기에 있어서 차별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또 이러한 대형화는 포와 저고리 그리고 바지 등 의복에 따라 대형화된 구성요소를 달리하였음도 알 수 있었다.

김원택묘 출토복식 가운데 포류가 30여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선후기 남자복식이 포류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종류 역시 심의, 사구삼, 단령(직령), 대창의, 도포, 중치막, 소창의 등 다양하였으며, 이러한 포류는 의복종류에 따라 총길이에서 차이

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조선후기 남자포가 의례복(上服)에서 일상복(반침옷 著者)의 의례정도를 의복의 길이(크기)로 구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원택묘 출토포류는 창의류가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창의류는 트임의 위치와 크기 및 소매형태에 의해서, 대창의는 두리소매와 뒷트임으로, 중치막은 두리소매와 옆트임으로, 소창의는 사선소매와 작은 옆트임으로 구성되어 의복별 의복별 유형분류가 가능하였다.

출토심의는 복건과 허리띠(帶)와 조대(粗帶)와 함께 심의일습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었다. 특히 앞뒤 길의 길이에 있어서 출토심의는 동일한 반면 앞길이 뒷길(胴)보다 긴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심의구성과 차이를 보이며, 정수리가 연결솔기가 출토복건은 뒷중심이 꽃로 이루어진 구성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원택묘 출토겹단령은 완전한 구성의 홀겹의 단령과 홀겹의 직령이 안팎으로 연결된 두겹 단령이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2개의 긴고름으로 구성된 3개의 고름구성은 안팎옷의 짓을 각각 고정시키기 위한 고름의 역할에 따른 구성으로 단령구성의 발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김원택묘 출토복식은 『사례편람(四禮便覽)』과 비교를 통하여 염습의의 의복종류에 의한 형식 측면은 엄격히 시행되었지만 여기서도 착용되는 의복으로 허용하는 융통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심의와 복건의 봉제구성에 의한 내용 측면에서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는 국속화된 일면으로 유추한다.

참고문헌

- 李緯, 『사례편람(四禮便覽)』, 국역사례편람(1992). 우봉이 씨대종회. 이화문화출판사
- 金長生, 沙溪全書 卷 36 〈儀禮問解〉
問 喪中死者襲斂 當用何服 姜頤期 退溪曰 服中死者 襲斂用孝服似當 然一用此服 地下千萬年 長爲凶服之人 雜用吉服 當大斂入棺 孝服一具與吉服一具 對置孝服右而吉服左 似有服盡用吉 可以兩得之意 不至長爲凶服之人
- 荀南澈 (2000). 茶山 丁若鏞의 深衣制度에 關한 研究. 한복문화학회지, 3(1), pp. 39-48.

- 4) 이민주, 최은수(2007). 조선시대 방령의 확산과정과 그 의미. *한복문화학회*, 10(2), p. 176.
- 5) 李緯, 袤의 緯 사례편(四禮便覽) 冠禮 陳冠服條 幅巾 用以加於縕冠上者 凡服深衣 必著縕冠 加幅巾 後凡言深衣 做此 其制 用黑繪或紬 長六尺四寸許 廣一尺四寸許 (指尺) 中摺其長 爲兩葉而反屈之 就屈處 圓殺一角如規合縫循其邊而下 至于兩末而止 下邊及不縫處 皆摺二寸許 爲緣而翻轉之 使縫餘及緣 皆藏在裏 爲長三尺 廣一尺二寸 通廣二尺四寸 既而從不縫邊中屈處 提起左旁小許 摺向左 又提起右旁小許 摺向右 兩相疊著 相疊在內 用線綴住而空其中 爲(輒子) 從輒子兩旁循邊而下 左右每三寸許 當鬢旁 各綴小帶一 廣二寸長二尺 用巾覆首 以輒當額前麥之 以兩小帶自巾外過頂 相結於腦後而垂其餘
- 6) 李緯, 袤의 緯 冠禮 陳冠服條 ...衣用白細布 鐵灌灰治為之布 廣二尺二寸(指尺) 後凡言布帛廣全幅者 皆做此 衣用布二幅 各長四尺六寸 中屈下垂 前後共為四幅 兩肩上中屈處 各裁入三寸縫合 背後直縫 除縫餘兩邊各一寸 則兩肩上裁入 合為四寸 自裁入處向前反摺 至衣下 卽翦去之 以備綴領
- 7) 袤의 緯 冠禮 陳冠服條 ○(按)若從裁法 則(衣)用布長五尺一寸 前垂二尺七寸 後垂二尺四寸..
- 8) 袪의 緯 冠禮 陳冠服條 (領)用布長五尺八寸 自項後摺轉向前 縫於肩上左右 至摺翦處 表裏各二寸 衣初裁時 通前後四幅 廣八尺八寸 除背後縫餘兩邊各一寸 及兩衿摺翦處各三寸 則為八尺 左右各綴領 廣二寸則為八尺四寸 又除兩腋之餘 前後各三寸 則為七尺二寸 以備下聯於裳 聯裳時 除縫餘一寸 則衣長為二尺二寸 每幅屬裳三幅
- 9) 袪의 緯 冠禮 陳冠服條 (裳)用布六尺 其長隨體之長短 並衣身以及踝為準 交解為十二幅 一頭廣一頭狹 廣頭為一尺四寸 狹頭為八寸 以狹頭向上而聯其縫 每幅兩邊 各除縫餘一寸 則上頭每幅六寸 通廣七尺二寸 下齊每幅一尺二寸 通廣十四尺四寸 上屬於衣 背後衣裳之縫 相當直下 此縫兩幅 皆用不裁開處(俗稱直縫) 合縫 其當兩腋之縫前後幅 皆用裁開處(俗稱解縫) 合縫
- 10) 袪의 緯 冠禮 陳冠服條 (圓袂) 用布二幅 各長四尺六寸 中屈之 屬於衣之左右 而縫合其下 爲袂 除縫餘一寸 為長二尺二寸 如衣之長 袖端下旁 圓殺如規 縫之留袂口一尺二寸 屬衣處 各除縫餘一寸 袢口綴緣處 又各除一寸 而衣屬袖處 亦除縫餘各一寸 則袖廣 通衣兩腋餘二寸 為二尺二寸 袢之長短 反詘之及肘 不以一幅為拘
- 11) 袪의 緯 冠禮 陳冠服條, (黑緣)用黑繪 飾領及袂口 裳旁下際 表裏各一寸半 領及裳旁下際 則疊縫在布上 袢口則布外別綴 此緣之廣...
- 12) 結大帶... (本註)圍腰而結於前 再縫之為兩耳 垂其餘為紳 下與裳齊 復以條約其相結處 長與紳齊...
- 13) 孟子, 離婁章句上, 凡二十八章
孟子曰 離婁之明 公輸子之巧 不以規矩 不能成方員
- 14) 金長生. 沙溪全書, 第25卷, 『家禮輯覽』通禮
方氏曰 袢在前 以動而致用 故欲圓 圓者動故也 裳在中 以靜而成體 故欲方 方者靜故也
- 15) 이은주 (2002). 이연웅 출토복식에 대한 고찰, 『조선의 옷매무새』, 경기도박물관 민속원, pp. 230-242.
- 16) 장인우 (2006). 전주이씨묘 출토의복의 형태와 봉제. *한복문화학회*, 9(2), pp. 111-121.
- 17) 김미자 (2002). 의원군(義原君)묘 출토복식. 조선의 옷매무새, 경기도박물관. 민속원, pp. 188-209.
- 18) 이은주 (2002). 袪의 緯, p. 236.
- 19) 송미경 (2007). 김학묘 출토복식연구. 김학 합장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pp. 148-283.
- 20) 朴聖實(1994). 天安出土 豊山洪氏 遺物小考, *한국복식 제12호*,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pp. 119- 143.
고부자 (2001). 풍산홍씨 출토복식. *한국복식 제19호*,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pp. 93-101.
- 21) 이민주 (2007), p. 176 재인용, 尹鑣 (1617-1680). 白湖全書 第42卷, 雜著, 領四寸 長及於衿 領以裁衽 餘布摺之為內外襟 長及於袖本 而加於兩衽之上 內外相疊 而結以紐束 則其形正方 卽所謂方領也 漢史云 頸下施衿領 正方學者之服 豈亦謂是歟 抑領制不見於經 但喪服制領四寸 吉凶殆同制也
- 22) 김장생, 沙溪全書, 제25권, 家禮輯覽, 通禮. --舊制無襟 故領微直而不方 今以領之兩端 各綴內外襟上穿着之際 右襟之末 斜交於左脣 左襟之末 斜交於右脣 自然兩領交會 方如規矣--
- 23) 李漢, 『星湖集說』卷12 人事門, (이돈형(李墩衡)의 이씨본 30권 30책) ..深衣之制 領當胸脣 帶在無骨 則又不可以無繫 謂之昌披 則不繫而露胸也..
- 24) 金集 (1574~1656). 旗獨齋全書, 제5권, 서(書)
- 25) 金長生. 沙溪全書, 제24권, 가례집람도설(家禮輯覽圖說)
- 26) 고부자 (2001). 홍의준 출토복식. *한국복식*, 12, pp. 119-147.
- 27) 김문숙, 최지연 (2004). 남오성묘 출토복식에 관한 고찰, 『남오성 묘 출토복식』, 국립민속박물관 유물보존총서 I, pp. 96-141.
- 28) 이은주 (2003). 동래정씨 홍곡공 일가 남자묘에서 출토된 복식류. 동래정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pp. 162-190.
- 29) 이은주 (2005). 김여온묘의 출토복식분석. 길집승홍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옷 이야기. 국립안동대학교 박물관, pp. 38-113.
- 30) 金長生. 喪禮備要. 乾.
- 31) 이민주, 최은수 (2007). 조선시대 방령의 확산과정과 그 의미. *한복문화학회*, 10(2), p. 175.
- 32) 筠南淑 (2000). 袪의 緯, p. 41.
재인용, 『禮記集說』, 朝服祭服喪服 皆衣與裳殊 惟深衣不殊 則其被於體也深邃 故名深衣